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809호 1판 (음력 7월 26일) 2014년 8월 21일 목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軍 "앞으로는, 무등산 정상 개방 않겠다"
民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 서둘러 추진"

광주시 "공군 측과 계속 협의"

지난 2011년 5월 14일. 45년 만에 개방된 무등산 정상부 천왕봉을 직접 밟으려는 탐방객들이 몰려들면서 장불재에서 군부대까지 1.8㎞에 이르는 거대한 인간띠가 형성됐다. 전국에서 온 탐방객들이 정상을 밟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부대 측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대해 '전면 불허'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개최됐던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가 당장 올 가을부터 중단되고,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되찾기 위한 '군부대 이전 사업'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부대를 지휘하는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측은 최근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불허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무등산사무소와 광주시 측에 통보했다.

공군 부대 측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 개방 전면 불허 방침의 이유로 군사 보안 목적과 함께 국토방위 업무의 공백 발생 등을 들었다. 여기에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장병의 수고와 행사 당일 부대 내 질서 유지의 어려움도 공군 부대 측이 정상 개방 불가 방침을 고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군부대 측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던 정상 개방을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문제"라며 "무등산 정상부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해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부대를 지휘하는 여단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광주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공군 부대 측을 설득하지는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무등산 정상부 개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공군 본부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등산 정상부는 지난 1966년 공군 부대 주둔 이후 45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다가 2011년 5월14일, 역사적인 '첫 개방'이 이뤄졌다. 이후 개방 행사는 매년 봄·여름·초가을·늦가을에 맞춰 연간 4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돼 왔다. 지난해 늦가을 개방행사를 끝으로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하루씩 열린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등산 애호가와 시민 등 24만여명이 참가하는 등 광주·전남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 등산 애호가들의 주요행사로 자리매김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알립니다

"부자되세요"

광주일보·선대인경제연구소 재테크 특강

잘못된 재테크 정보 때문에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있는 돈도 까먹지는 않으셨습니까?

광주일보와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재테크정보의 허실'특강은 최근 서울에서 뜨거운 호평 속에 진행된 명강연입니다.

검증된 재테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함께 가계 경제의 시름을 더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대인 소장 정남수 팀장 심영철 대표 윤석천 칼럼니스트

■강사진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국내 가계 자산구조 분석 통한 내 집 마련'
-정남수 선대인경제연구소 자산시장팀장 '보험과 저축, 연금활용법'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주식과 펀드, 채권 투자의 건강한 접근법'
-윤석천 경제칼럼니스트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외환 및 상품투자'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1시 ~ 7시
(점심·저녁은 제공되지 않으며,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장소 :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타워 3층 세미나실
(광주 동구청 뒤편. KT광주타워 건물 지하 무료 주차가능)
■모집인원 : 150명 선착순 모집
■수강료 : 9만원(강연슬라이드 제공)
■수강신청 방법
1.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sdinomics.com) 신청 후 바로 결제
2.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
문의 070-7561-7139 또는 webmaster@sdinomics.com

光州日報社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급물살'

국책사업서 민자사업 전환
터널 뚫리면 목포서 40분

호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사업(이하 제주해저터널사업)에 국내 건설업체가 관심을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추진 가능성이 높은 주요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막대한 국가예산 투입, 제주도 내 일부 이견 등에 의해 발목이 잡혀 논의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이 같은 걸림돌이 사라져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국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장기화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체들이 국가가 검토중인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제주해저터널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등은 제주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제주공항의 수요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신공항 건설 가능성도 적어 목포～제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중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업참여를 결정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다만 관련 세미나와 학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건설사들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토교통부나 전남도는 공식 제안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며, 제주도는 '섬 정체성 파괴'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목포～제주 해저터널 KTX 사업개요

소요시간	40분
길이	171㎞(해저터널 85㎞)
예상사업비	16조 8000억원
공사기간	8년(내년에 기본계획 세우면 2025년 완공)

민선 6기 광주·전남
중국과 무엇을 할것인가
▶오늘 오후 2시 호남대

2014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8월 18일(월)~25일(월)
입학문의 062)605-1115, 1021
광신대학교

이낙연 지사 "KTX 나주역·무안공항 경유"

국토부 동의 기재부와 조율 중

이낙연 전남지사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과 관련 '나주역과 무안국제공항 동시 경유안'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선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국제공항이라는 중요 거점 경유를 통해 호남고속철도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최근 KBC 특집 '함께가는 남도, 희망을 말하다'에 출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광주 송정～목포) 경유역 등 노선에 대해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동시에 경유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도 안에 대해 국토부는 동의한 상태이며 기획재정부는 조율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노선은 전임 박준영 지사가 주장한 송정～무안공항 간 신설안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 전남도 입장도 변경됐다. 이 지사는 "나주역은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경유가) 불가피하며 무안공항도 중요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노선안은 다른 안과는 달리 S자 형태로 길이가 76.1km로 가장 길다. 나주와 함평까지는 기존 호남선 철로를 활용하고 무안공항까지 신설하는 형태다.

전남도 입장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나주 및 무안공항 경유와 용역을 발주해 4가지 안을 검토중인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